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기업분석 | 2026.07.29



KOSPI | 증권

현대차증권 (001500)

주주환원 정책 의지 강한 증권사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및 이행상황

- 2025년 1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사업계획을 2026년까지 회복기와 2027년 이후 안정기로 구분. 회복기에는 자본기반 강화와 수익성 개선, 안정기에는 이익 창출 구조를 구축한다는 전략. ROE 목표치로 2025년 4.0%, 2026년 7.0%, 2027년 8.0%, 2028년 이후 10% 이상 제시
- 주주환원정책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 표명. 배당성향을 2027년까지 30~35% 수준 유지, 2028년 이후 40% 이상 확대 방침 밝힘
- 2025년 유상증자와 상환전환우선주 상환 및 소각 통해 재무 안정성 확보. ROE 4.2%, 배당성향 39.7%로 핵심 재무지표 달성. 2026년에는 배당성향 40.5%로 2028년 보다 빠르게 배당성향 40% 초과할 것으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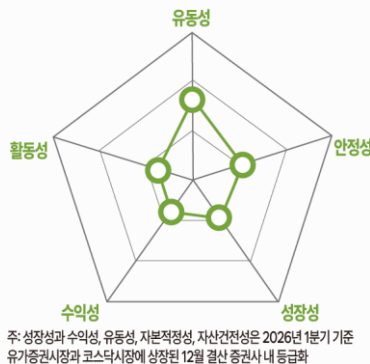
체크포인트

- 현대차그룹 계열 증권사로 안정적인 캐피탈을 보유하고 있는 중형 증권사
- 투자포인트는 1) 지속적인 주주환원 정책과 2) 계열사와의 시너지 효과
- 2026년 순영업수익(연결 기준) 4,144억원(+34.1%YoY), 영업이익 979억원(+35.6%YoY)으로 추정. 밸류에이션 레벨 업을 위해서는 계열사와의 시너지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ROE 입증 과정 필요할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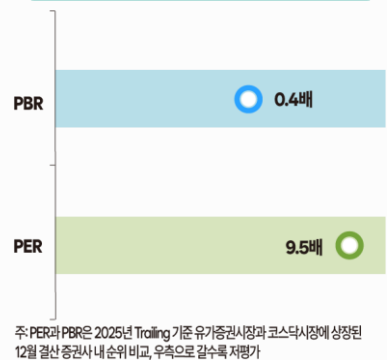
주가 및 주요이벤트



재무지표



밸류에이션 지표



현대자동차그룹 내 증권사

현대차증권은 자본 규모 15위의 중형 증권사. 현대자동차 그룹이라는 안정적인 캡티브 기반을 보유하고 있으며, IB 중심 사업구조 구축하고 있는 증권사. 동사의 매출액(별도기준, 2025년 기준)은 순수수수익(68.5%), 순이자이익(29.9%), 상품운용손익(-1.8%)과 기타영업이익(3.4%)로 구성. 순수수수익은 1) 위탁매매수수료(18.0%), 2) 자산관리 수수료(12.0%), 3) IB수수료(35.1%)와 4) 기타수수료(3.4%)로 세분화

투자포인트1. 지속적인 주주환원 정책

동사는 2025년 1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사업계획을 2026년까지의 회복기와 2027년 이후 안정기로 구분. 주주환원 정책도 사업계획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 ROE 목표치를 2025년 4%, 2026년 7%, 2028년 이후 10% 이상, 배당성향을 2027년까지 30~35% 수준 유지, 2028년 이후 40% 이상을 제시. 2025년 ROE 4.2%, 배당성향 39.7%로 핵심 재무지표 달성. 주주환원정책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배당성향이 실제 계획치(2028년 40% 이상) 보다 빠르게 올해부터 40.5%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 현 주가 수준에서 배당수익률 6.3%에 해당하며, 이는 동사 주가의 하방 경직성을 제공해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투자포인트2. 계열사와의 시너지 효과

동사는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와의 협업을 기반으로 퇴직연금, IB, 리테일, 신사업 등 다양한 사업 부문에서 그룹 시너지 창출. 계열사의 안정적인 고객 기반과 금융 수요를 활용해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사업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 특히, 퇴직연금 부문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 보유하고 있는데,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14.9조원 가운데 77.5%가 그룹 계열사 적립금으로 구성. 현재 DB형 중심의 사업구조를 DC-IRP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 맞추고 있음. 중장기적으로 탄소 배출권 시장에서도 계열사 대상으로 거래 대행과 가격 리스크 관리 자문 제공해 신규 수익원 확보에도 나설 계획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2022	2023	2024	2025	2026F
순영업수익(억원)	3,256	2,516	2,634	3,090	4,144
영업이익(억원)	1,146	652	547	723	979
지배주주순이익(억원)	871	535	362	577	755
EPS(원)	2,747	1,687	1,140	1,234	1,221
증감율(%YoY)	-28.8	-38.6	-32.4	8.3	-1.1
BPS(원)	38,617	40,293	41,059	23,342	23,904
PER(배)	3.3	5.1	6.5	6.4	6.5
PBR(배)	0.2	0.2	0.2	0.3	0.3
ROA(%)	0.9	0.5	0.3	0.5	0.6
ROE(%)	7.3	4.3	2.8	4.2	5.2
배당수익률(%)	6.1	4.7	2.4	4.6	6.3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Company Data

현재가(07/27)	7,970원
52주 최고가	13,800원
52주 최저가	7,640원
KOSPI(07/27)	6,755.75p
자본금	194십억원
시가총액	493십억원
액면가	5,000원
발행주식수	62만주
평균거래량(60일)	27만주
평균거래대금(60일)	28억원
외국인지분율	31.4%
주요주주	현대자동차 외 4인 39.88%

Price & Relative Performance



Stock Data

주가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1.1	-11.8	-12.4
상대주가	25.9	-33.6	-58.6

▶참고 1) 표지 재무지표에서 자본적정성 지표는 '순자본비율', 성장성 지표는 '순영업수익 증가율', 수익성 지표는 'ROE', 자산간전성지표는 '고정자산비율(별도 기준)', 유동성지표는 '유동비율(별도)'임. 2) 표지 밸류에이션 지표 차트는 해당 산업군내 동사의 상대적 밸류에이션 수준을 표시. 우측으로 갈수록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음.

▶기업 밸류업 공식 법안 주주가치 존중 기업문화로의 변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하는 기업.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며 투자자와 소통하는 기업



기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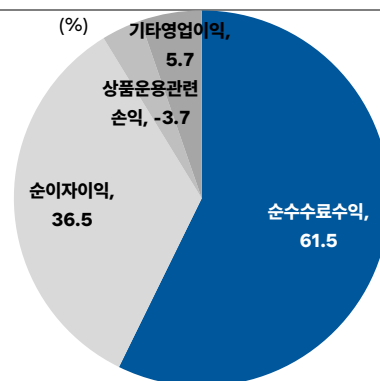
1 안정적인 캐피탈 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

현대자동차그룹 내 증권사로,
IB 중심 사업구조를 구축하고 있는
증권사

현대차증권은 2026년 1분기 기준으로 증권업계(국내 증권사 49개사, 별도 재무제표 기준)에서 자본 규모로는 15위(1조 4,254억원)를, 자산 규모로는 18위(12조 444억원)를 차지하고 있는 중형사이다. 동사는 현대자동차그룹 내 증권사로 안정적인 캐피탈 기반을 보유하고 있으며, IB 중심 사업구조를 구축하고 있는 증권사이다. 그룹 계열사의 자금조달 및 금융자문 수요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점은 실적 변동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향후 현대차그룹의 투자 확대에 따른 기업금융 수요 증가의 수혜도 기대 가능하다. 동사는 작년 1월 밸류업 공시를 통해 2028년까지 1) ROE 10% 이상, 2) 배당성향 40% 이상을 제시하며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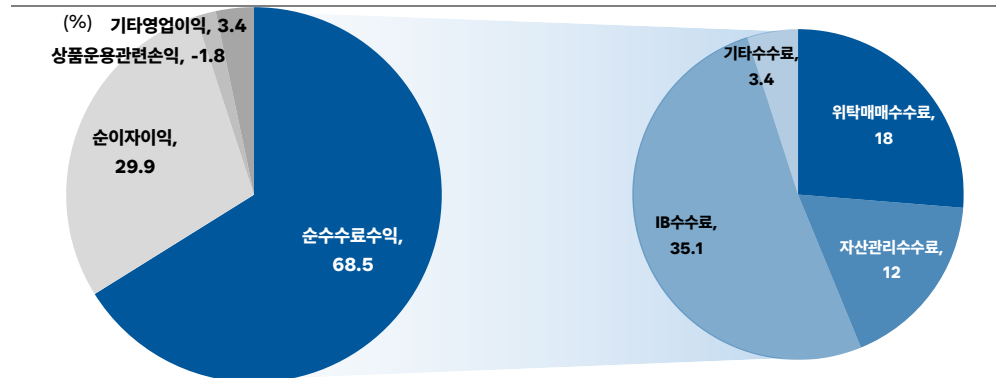
동사의 매출(순영업수익, 연결기준)은 순수수수료수익(61.5%, 2025년 기준), 순이자이익(36.5%), 상품운용관련손익(-3.7%)과 기타영업이익(5.7%)으로 구성되어 있다. 증권사만의 별도 기준 매출액은 순수수수료수익(68.5%, 2025년 기준), 순이자이익(29.9%), 상품운용손익(-1.8%)과 기타영업이익(3.4%)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별도기준 순수수수료수익은 1) 위탁매매수수료(18.0%), 2) 자산관리 수수료(12.0%), 3) IB수수료(35.1%)와 4) 기타수수료(3.4%)로 세분화된다. 참소로 기타수수료 수익과 상품운용손익 중 일부는 IB 사업과 관련되어 있다.

현대차증권의 순영업수익 구성(2025년 연결 기준)



자료: 현대차증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현대차증권의 순영업이익 구성(2025년 별도 기준)



자료: 현대차증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연혁: 1955년 설립,
1990년 유가증권 시장 상장,
2008년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편입**

현대차증권은 1955년 신흥증권으로 설립되어 1990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2008년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로 편입되면서 HMC투자증권으로 사명을 변경했고, 이후 현대차그룹의 금융계열사로 자리매김했다.

그룹 편입 이후 두 차례의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했으며, 자본시장법 시행에 맞춰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서의 사업 기반을 구축했다. 이후 신탁업, 퇴직연금, 장내·장외 파생상품, 신기술사업금융업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며 종합 증권사 체제를 갖췄다.

2018년 현재의 현대차증권으로 사명을 변경했으며, 2020년 자기자본 1조원을 돌파하며 기업금융(B) 경쟁력을 강화했다. 이어 2021년 마이데이터 분허가를 취득해 디지털 금융사업에 진출했고, 2025년 유상증자를 통해 1,620억원의 자본을 추가 확충하며 신용리스크를 완화하는 한편 기업금융과 투자금융 역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연혁

1955~2009	2010~2019	2020~
1955.07 신흥증권으로 설립 1990.01 서울증권으로 사명 변경, 1990.06 한국가계소 유가증권 시장 상장 2008.05 현대자동차그룹 계열편입, HMC투자증권으로 사명 변경 2008.07 유상증자, 납입자본금 792억원 2009.02 투자매매, 중개, 자문, 일임업 재인가/재등록 2009.07 유상증자, 납입자본금 1,467억원 2009.10. 신탁업, 퇴직연금업무 개시	2010.03 장내외 파생상품인가 취득 2011.03 기업어음(CP) 신용등급 A1 획득 2013.07 자산관리브랜드 'The H' 런칭 2015.05 업계 최초 IRP연금융 오픈 2016.05 7년 연속 KSOI클센터서비스 부문 우수기업 선정 2017.04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The H on-ly' 오픈 2017.09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 2018.07 현대차증권'으로 사명 변경 2019.11 상환전환우선주 발행(9,418,179주, 1,036억원)	2020.06 자기자본 1조원 돌파 2021.03 기업신용등급(ICR) AA- 획득 2021.12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분허가 취득 2023.05 신규MTS '내일오픈' 2023.10 4년 연속 한국ESG기준원(KCGS) ESG평가 통합 A등급 획득 2024.04 장외채권 MTS거래 신규 오픈 2024.01 기업가치제고 방안 발표 2025.03 유상증자, 납입자본금 1,620억원 2025.05 상환전환우선주 전여분 소각(775억원 상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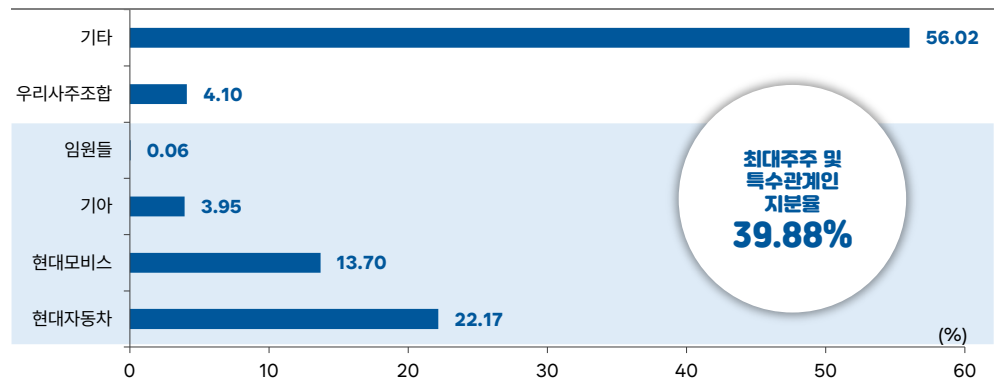
자료: 현대차증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주주 구성

현대차증권의 최대주주는
현대자동차로 지분율
22.17% 보유

2026년 3월말 기준으로, 현대차증권의 최대주주는 현대자동차로 지분율 22.17%를 보유하고 있다. 이 외 계열사인 현대모비스와 기아가 각각 13.70%, 3.9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임원인 배형근과 영영근 각각 26,827주(지분율 0.04%)와 10,000주(지분율 0.02%)를 가지고 있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합계는 39.88%이다. 우리사주 조합의 지분율은 4.1%이며, 자사주는 없다.

현대차증권의 주요 주주 구성(2026년 3월말 기준)



자료: 현대차증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산업 현황

**증권업 지수, 2025년 100%,
2026년 134% 상승
(5월 최고치 기준).**

**주요인은 코스피 급등과 정부의
정책, 머니무브 기대 때문임.
반도체 업황 우려와 함께,
증권주는 올해 5월 이후
최근까지 44% 급락**

현대차증권은 증권사이며, 증권 산업에 속해 있다.

작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급등했던 코스피 지수와 증권업 지수는 최근 조정을 받았다.

코스피 지수는 2025년 756%, 2026년 111.5% 급등한 바 있다. 2025년 초 2,398pt였던 지수는 2026년 6월 22일 9,114pt(최고치 기준)까지 급등했다. 이와 같이 코스피 지수가 급등한 주요인은 1) AI반도체 슈퍼 사이클, 2) 정책 변화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 기대와 3) 유동성 유입이 있었다.

우선, 글로벌 AI 투자 확대 과정에서 HBM, AI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폭증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이 급격히 상향되었다. 2024년 33조원을 기록했던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2025년 44조원으로 33% 증가했고, 올해는 356조원(시장 컨센서스 기준)으로 717%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SK하이닉스 영업이익 역시 2024년 23조원, 2025년 47조원(+101.2%YoY)를 기록한데 이어, 2026년 259조원(+448.5%YoY)으로 전망되고 있다. 두 기업의 시가총액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크게 상승했다.

또한, 2025년 이후 기업가치 제고정책, 주주환원 확대, 지배구조 개선 등이 본격화되면서 한국 시장 저평가가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졌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주주에게 우호적으로 3차례의 상법이 개정되면서 외국인들의 국내 시장 유입에 영향을 끼쳤다. 3차례의 상법 개정은 1차 2025년 7월, 2차 2025년 8~9월, 3차 2026년 2~3월에 이뤄졌다. 1차 상법 개정에서는 1)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까지 확대, 2) 독립이사 제도 강화, 3) 감사위원 선임 시 3%를 강화, 4) 전자주주총회 도입이 이루어졌다. 특히, 이 중 이사 충실의무 확대는 투자자들이 가장 높게 평가한 부분이었다. 2차 상법 개정에서는 1) 집중투표제 의무화, 2)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이뤄졌다. 3차 상법 개정은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며 주주환원정책이 강화되었다.

이와 같은 실적 개선과 제도 변화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한국 증시에 대한 신뢰를 높였으며, 풍부한 유동성 유입과 맞물려 코스피 지수의 역사적 상승을 이끌었다.

코스피 지수 상승과 함께 증권주도 급등했다. KRX 증권업종 지수는 2025년 99.9%, 2026년 133.9% 상승했으며, 2025년 초 2,089pt였던 지수는 2026년 5월 6일 9,805pt(최고치 기준)까지 급등했다. 증권주 강세는 크게 두 단계에 걸쳐 진행되었다. 초기에는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가 주가 상승을 이끌었고, 이후에는 실제 증시 거래대금 증가와 투자자 자금 유입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가 주가 상승을 뒷받침했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은 '세계로 이끄는 혁신경제'를 핵심 기조로 하며, 금융 부문에서는 '성장을 복돋는 금융혁신'을 주요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 자본시장 기반의 혁신성장 체계 구축, 2) 금융의 생산적 역할 강화, 3) 부동산 중심의 자산구조를 금융자산 중심으로 전환, 4) 민간 및 시장 주도의 혁신투자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단기적인 경기 부양보다는 자본시장을 국가 성장의 핵심 인프라로 육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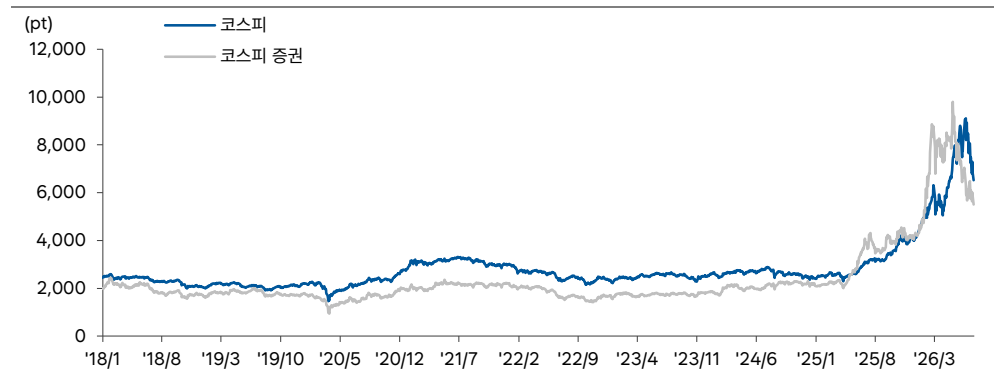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연간 40조원 규모의 벤처투자 시장 육성, 세제·제도 개선을 통한 증시 활성화 정책 등을 추진했다. 이러한 정책들은 자본시장 확대와 금융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를 높이며 증권주 밸류에이션 상승의 배경이 되었다.

이후 2025년 하반기부터는 정책 기대에 더해 코스피 지수 급등과 증시로의 머니무브가 본격화되면서 증권사 실적 개선 가능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브로커리지 수익 확대, 신용공여 잔고 증가, 투자은행(IB) 및 자산관리(WM) 부문의 성장 기대가 높아졌고, 이는 증권주 주가의 추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증권주는 정부의 자본시장 육성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시작한 이후, 실제 자본시장 활성화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가 더해지면서 코스피 지수를 상회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최근 코스피 지수와 함께 증권주는 급락했다. 7월 20일 기준 코스피 지수와 증권업 지수의 증가는 6,516.3pt와 5,506.7pt로 2026년 최고치 대비 각각 28.5%, 43.8% 하락했다. 급락의 주요인으로는 1)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의구심, 2) 반도체 비중이 극단적으로 높아졌던 수급 쏠림, 3)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수급에 의한 종폭 효과와 4) 미국-이란간의 지정학적 리스크 재부각, 5)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매파적 움직임과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등이 있다. 이 중 가장 큰 원인은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의구심이다. 올해를 기점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익 증가율 속도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가운데, 하이퍼크스케일러(AI데이터센터에 자금을 투자하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CAPEX 속도 조절에 대한 의구심이 차익실현 수요로 이어졌다. 특히, 변동성이 큰 증권주가 코스피 지수보다 낙폭이 컸다.

코스피 지수와 증권업 지수 추이



자료: Quantwis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높은 ROE와 낮은 밸류에이션,
브로커리지 위주의 질적 이익
개선으로 증권주 반등 가능성 높을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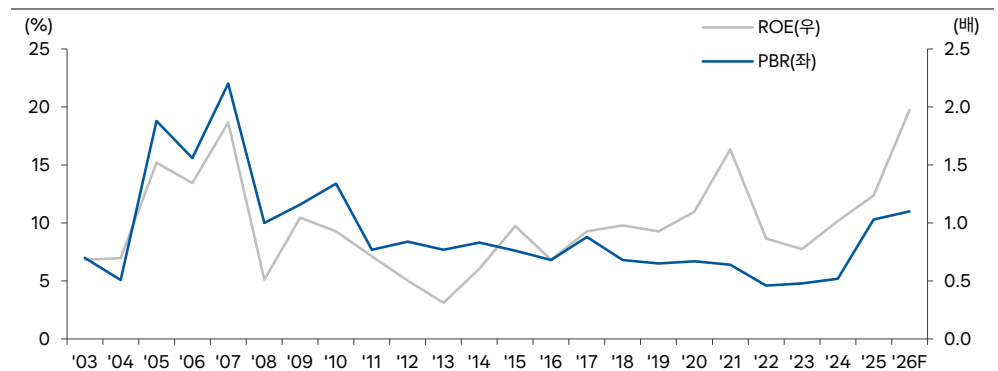
최근 증권업 지수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지만, 증시 변동성이 완화될 경우 하반기로 갈수록 반등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한다.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주가 하락으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현재 시장 컨센서스 기준 코스피의 2026년 예상 ROE는 19.7%로 2007년(18.7%)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당시 코스피 평균 PBR은 2.2배였던 반면, 현재 PBR은 올해 2월 2.2배에서 최근 약 1.1배까지 하락했다. 높은 자기자본이익률이 유지되는 가운데 밸류에이션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 만큼, 증시가 안정될 경우 증권업종의 재평가 가능성도 확대될 것으로 판단한다.

실적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최근 증권사들의 이익 증가는 레버리지를 활용한 고위험 투자보다는 브로커리

지 중심의 거래대금 확대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이다. 2025년 국내 주식시장(KRX+NXT) 일평균 거래대금은 25.9조 원으로 2024년(19.0조원) 대비 36% 증가했으며, 2026년 상반기에는 76.2조원으로 전년 대비 194% 급증했다. 특히 5월과 6월 일평균 거래대금은 각각 106.2조원, 110.7조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최근 주가 조정으로 거래대금은 전월 대비 다소 감소했고, 하반기에는 상반기 대비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증시로의 자금 유입(Money Move)과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기조를 감안하면, 거래대금은 지난해를 크게 웃도는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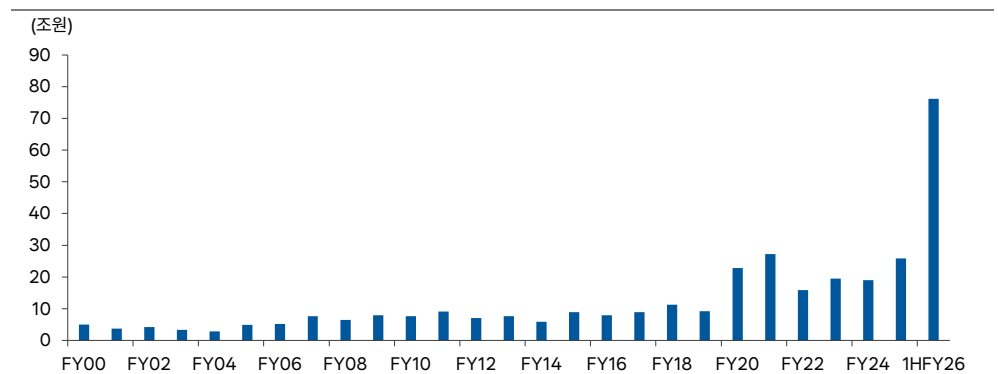
이익 증가에 따른 자본 확충 역시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이다. 증권사의 자기자본이 확대될수록 신용공여 여력이 증가하고, 초대형 IB의 발행어음 및 IMA(종합투자계좌) 운용 한도도 확대된다. 이는 이자이익과 트레이딩 손익 확대를 통해 추가적인 이익 성장을 가능하게 하며, 다시 자본이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한 브로커리지 호황에 그치지 않고 증권사의 중장기 이익 체력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코스피 증권업 지수의 ROE와 PBR 추이 및 예상



자료: Quantwis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연도별 일평균 국내 주식거래대금 추이



자료: Quantwis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투자포인트

1 지속적인 주주환원 정책

투자포인트1. 지속적인 주주환원 정책. 2025년 1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ROE 목표치: 2025년 4%, 2026년 7%, 2028년 이후 10% 이상

현대차증권의 첫번째 투자포인트는 지속적인 주주환원 정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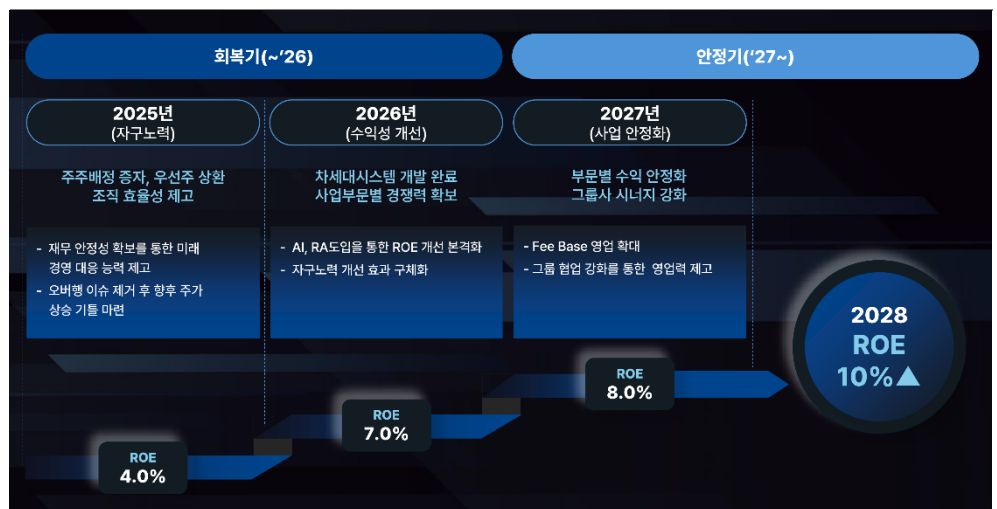
동사는 2025년 1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며 중장기 주주가치 제고 전략과 구체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제시했다. 2030년 비전으로는 재무 안정성과 자본효율성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며 업계 최고의 고객 및 주주가치를 실현하는 증권사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1) 재무 안정성 강화 2) 인재 및 시스템 경쟁력 확보 3) 디지털 특화와 해외 사업 확대를 중심으로 한 선택과 집중 4)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투명경영을 통한 지속가능경영을 핵심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배당성향: 2025년~2027년 30~35%, 2028년 이후 40% 이상

동사는 사업계획을 2026년까지의 회복기와 2027년 이후 안정기로 구분했다. 2025년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 기반을 강화한 데 이어, 2026년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수익성 개선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Fee Base 중심의 사업 비중 확대와 그룹 계열사와의 협업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이익 창출 구조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ROE 목표는 2025년 4.0%, 2026년 7.0%, 2027년 8.0%, 2028년 이후 10% 이상으로 제시했다.

주주환원 정책도 사업계획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회복기인 2027년까지는 상환전환우선주 매입·소각(2025년 완료)과 함께 배당성향을 30~35% 수준으로 유지하고, 2028년 이후 주주가치 제고 단계에서는 ROE 10% 이상을 유지하는 동시에 배당성향을 4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자본 확충 이후 수익성 개선과 자본 효율성 제고를 통해 주주환원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했다.

현대차증권의 중장기 사업 계획



자료: 현대차증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현대차증권의 주주환원 계획



자료: 현대차증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2025년 ROE 4.2%, 배당성향 39.7%로 핵심 재무지표 달성.
2026년 배당성향은 40.5%로 추정하며, 현주가 수준에서 배당수익률 6.3%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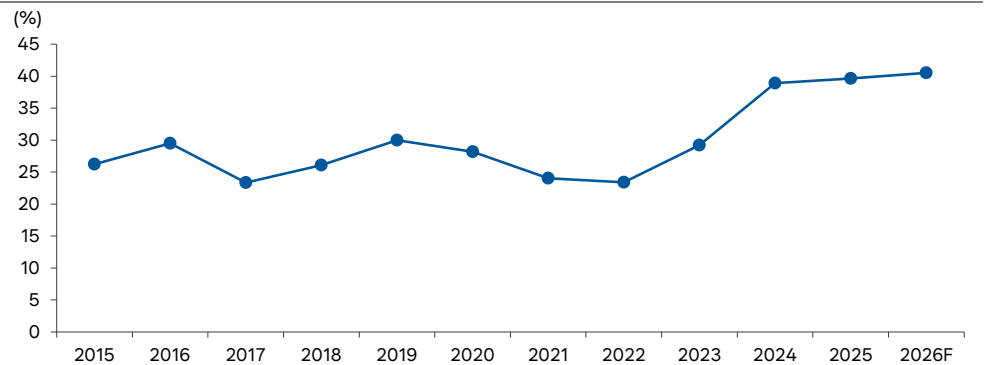
현대차증권은 2025년 핵심 재무지표 목표를 달성했다. 즉, 2025년 ROE 목표였던 4.0%를 초과한 4.2%기록했고, 배당성향 목표치였던 30~35%를 상회하는 39.7% 배당성향을 기록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 결과로 고배당기업으로 지정되었다.

또한, 1,62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실시와 상환전자우선주(704만주) 상환 및 소각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고 재무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외에 2025년 2월 CEO 주관 중장기 기업가치제고 IR설명회를 실시하며 투자자와의 소통을 강화했다.

동사는 올해를 회복기의 마지막 단계로 설정하고 수익성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차세대 시스템 개발 완료, AI 및 RA(로보어드바이저) 도입과 사업 부문별 경쟁력 확보를 핵심과제로 추진 중이다. 특히, 올해 10월에 오픈 예정인 차세대 시스템은 기존의 비효율적인 프로세스를 개선해 상품 도입 속도를 높이고 수익성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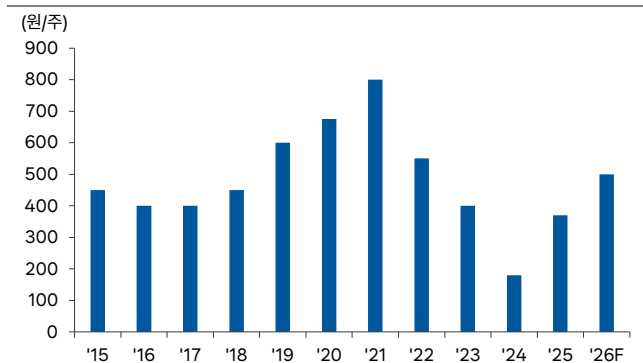
올해 동사의 ROE 목표치는 7.0%로 설정되어 있으며, 1분기 분기 ROE 7.4%를 기록했다. 동사의 2026년 배당성향 목표는 30~35%이다. 그러나 작년 이미 배당성향 39.7%를 기록하며 고배당기업으로 지정된 동사는 시장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올해에도 당초 목표보다 높은 40% 수준의 배당성향을 조기에 확대할 계획이다. 당사는 올해 동사의 배당성향을 40.5%, 주당현금배당금을 500원으로 추정하며, 현주가(7/27) 수준에서 배당수익률은 6.3%이다. 이와 같이 높은 배당수익률은 동사 주가의 하방 경직성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현대차증권의 배당성향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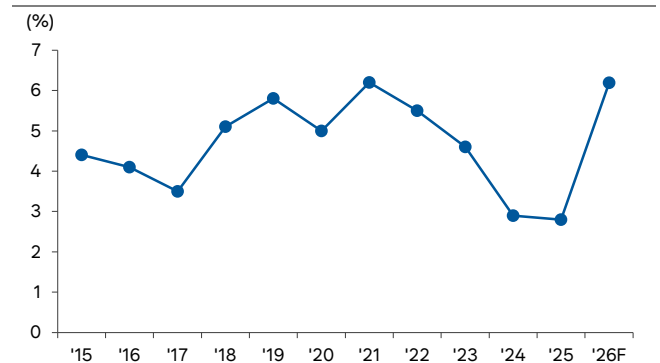
자료: 현대차증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현대차증권 주당 배당금 추이



주: 보통주 기준, 자료: 현대차증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현대차증권 배당수익률 추이



자료: 현대차증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계열사와의 시너지 효과

투자포인트2. 계열사와의 시너지 효과

가장 큰 경쟁력은 퇴직연금 부문, 리테일, IB부문과 신사업 부문에서 시너지 창출 중

현대차증권의 두번째 투자포인트는 계열사와의 시너지 효과이다.

현대차증권은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와의 협업을 기반으로 퇴직연금, IB, 리테일, 신사업 등 다양한 사업 부문에서 그룹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그룹 계열사의 안정적인 고객 기반과 금융 수요를 활용해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사업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가장 큰 경쟁력은 퇴직연금 부문이다. 2025년말 기준으로 현대차증권의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9.2조원이다. 이는 퇴직연금 사업자 45개사 중 11번째로 크며, 증권업계에서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에 이어 4번째로 큰 규모이다. 중형사 중에서 퇴직연금 규모가 경쟁사 대비 상대적으로 큰 것은 현대차그룹 계열 증권사로 계열사 직원 가입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동사의 퇴직연금 적립금의 77.5%인 14.9조원이 계열사 적립금이다. 계열사 중심의 안정적인 적립금은 운용수익과 수수료 수익의 기반이 되는 동시에 실적 변동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현대차증권은 2026년 퇴직연금 부문의 핵심 전략으로 DB 중심의 사업구조를 DC·IRP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25년말 기준으로 동사의 퇴직연금의 85.5%인 16.4조원은 DB형이며, IRA는 10.7%(2조원), DC형은

0.7조원(3.8%)에 불과하다.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은 그룹 계열사의 DB형 비중이 높은 구조이나, 향후 수익성과 성장성이 높은 DC·IRP 시장을 적극 공략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우선 수수료 경쟁력을 기반으로 계약 법인을 선제적으로 확보한 이후 가입자 수와 적립금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고객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가입자 자산 유입을 확대하는 한편, 향후 퇴직연금 제도 의무화에 대비해 아직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법인을 대상으로 전담 TFT를 운영하는 등 신규 고객 확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퇴직연금 사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 인프라 혁신도 추진하고 있다. 기존 본사 중심의 DC·IRP 가입자 관리 체계를 영업점 중심으로 개편해 고객 접점을 확대하고, 지방 주요 거점에는 퇴직연금 전문 인력을 전진 배치해 상담 및 자산관리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당사는 단순 적립금 확대를 넘어 가입자 관리 품질을 높이고 장기 고객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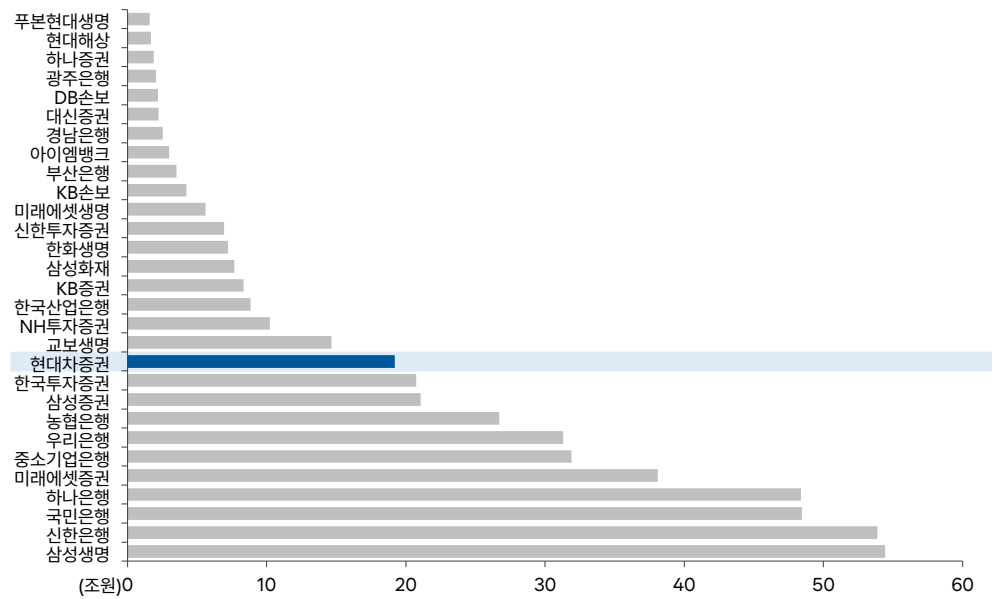
리테일 부문에서도 그룹 계열사와의 협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임직원 성과급의 일부를 자주주로 지급하고 있으며, 해당 주식은 현대차증권 계좌를 통해 관리된다. 회사는 이를 계기로 그룹 임직원을 핵심 고객층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MTS 고도화와 해외주식 실시간 시세 제공 등 디지털 서비스 강화를 통해 계열사 임직원의 금융 플랫폼 이용률을 높이고 있다.

IB 부문에서는 그룹 계열사의 회사채 발행 주관 및 인수를 수행하며 안정적인 딜 소싱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당사는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와의 협업을 통해 벤처투자 및 신성장 분야에서도 시너지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그룹과 공동으로 KDB-HMG제로원신기술사업투자조합과 HMG제로원3호신기술투자조합 등 2개의 펀드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HMG제로원3호신기술투자조합은 2025년 신규 결성됐다. 이를 통해 그룹의 오픈노베이션 전략과 연계한 유망 기술기업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그룹과의 공동 펀드 외에도 KDB모빌리티-이차전지오픈노베이션조합과 히토류모빌리티투자조합을 2025년 신규 결성하며 모빌리티, 이차전지, 핵심 소재 등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확대했다. 이는 그룹 계열사와의 협업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투자 영역을 미래 산업 전반으로 넓혀 운용수익원을 다변화하려는 전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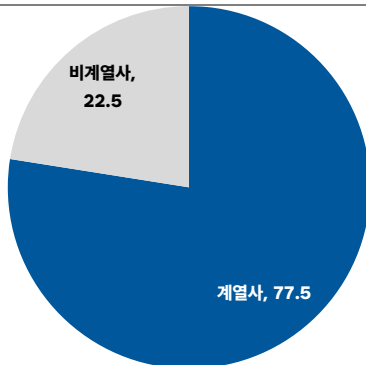
이외에도 탄소배출권 시장에서는 그룹 계열사를 대상으로 거래 대행과 가격 리스크 관리 자문을 제공하는 등 신규 수익원 확보에도 나서고 있다. 향후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이 확대될 경우 그룹 내 수요를 기반으로 관련 사업의 성장 가능성도 기대된다.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2025년 12월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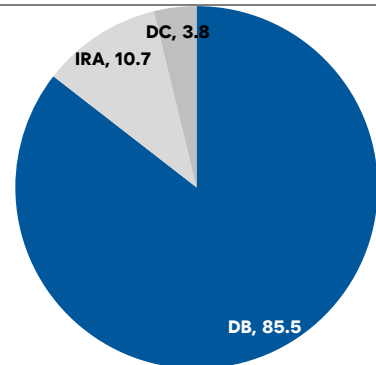
자료: 금감원,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현대차증권 퇴직연금 적립금 구성(계열사 vs. 비계열사)



주: 2025년 12월말 기준, 자료: 현대차증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현대차증권 퇴직연금 적립금 구성(DB, DC, IRA)



주: 2025년 12월말 기준, 자료: 현대차증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실적 추이 및 전망****1 2025년 실적 Review**

2025년 순영업이익
3,055억원(+16.0%YoY),
영업이익 687억원(+36.0%YoY)
기록

현대차증권의 2025년 순영업이익(별도기준)은 3,055억원으로 전년 대비 16.0% 증가했다.

순영업이익증가의 주요인은 순수수수료의 증가였다. 동사의 순수수수료는 2,092억원으로 전년 대비 27.9% 증가했다.

수수료 수익 중에서는 수탁수수료 수익이 758억원으로 전년대비 33.1% 증가하며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주식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25.9조원(KOSPI 12.3조원+KOSDAQ 7.5조원+NEXT 6.1조원)으로 2024년 19.0조원 대비 36.4% 증가한 점이 견조한 수탁수수료 수익의 주요인이었다. 동사의 주식시장 거래대금 시장점유율은 1.2%로 전년 대비 0.2%p 상승했으나, 수수료율은 9.0bp로 2.4bp 하락했다. 이에 따라 지분증권위탁매매수수료는 699억원으로 28.2% 증가했으며, 선물 및 옵션 위탁매매수수료도 23억원으로 147.8% 급증했다.

IB관련수수료 수익과 기타수수료 수익 합계액도 1,178억원으로 전년대비 32.2% 증가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수익증권(본사 사옥) 매각 차익 및 데이터센터 투자 수익 창출 등으로 IB수수료 수입이 확대가 되었다. 이에 따라 인수 및 주선 수수료가 243억원으로 전년대비 74.4% 급증했으며, 채무보증관련수수료 수익(기타 수수료 포함)도 936억원으로 전년대비 12.1% 증가했다. 채무보증금액은 7,732억원으로 전년도 5,632억원에서 증가했으며, 자본 대비 비율도 2024년 44%에서 2025년 54%로 상승했다. 참고로, 채무보증업무와 관련된 대출채권 손실액은 301억원으로 전년도 291억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순이자이익은 913억원으로 전년대비 4.6% 감소했고, 상품운용관련손익은 55억원 적자 전환했다. 기존에 투자된 우량 자산의 매각으로 수익을 창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 평가손실이 확대되며 전년대비 실적이 부진했다.

동사의 영업이익은 687억원으로 전년대비 36.0%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도 542억원으로 49.1% 증가했다. 연결 지배주주순이익은 577억원으로 전년대비 59.7% 증가했다. 동사의 연결종속회사로는 부동산 PF 자산유통화 관련 SPC들과 한강태양광발전 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 11호(지분율 99.99%), 크리노베이션미래신기술조합(83.33%), 벤코어RE100 에코리더 일반사모특별투자신탁 1호(99.45%)가 있다.

2 2026년 1분기 실적 Review

2026년 1분기 순영업이익
942억원(+10.0%YoY),
영업이익 313억원(+10.7%YoY)
기록

현대차증권의 2026년 1분기 순영업이익은 942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0.0% 증가했다.

순영업이익 증가의 주요인은 수탁수수료 급증이다. 동사의 수탁수수료 수익은 504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80.5% 급증했다. 이는 코스피 지수가 2025년 하반기 이후 올해 6월 22일까지 134% 급등하면서, 주식시장에 유동성이 유

입되면서 2026년 상반기 주식 시장의 일평균거래대금이 76조원으로 194% 급증했기 때문이다.

반면, 시장금리 인상으로 채권 운용손실이 확대되며 상품운용관련손익 적자 폭은 확대되었고, 기타영업이익도 감소했다.

동사의 영업이익은 313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0.7%, 당기순이익은 252억원으로 26.8% 증가했다. 연결기준 지배 주주순이익은 266억원으로 37.9% 증가했다.

2026년 실적 전망

**2026년 순영업수익
4,100억원(+34.2%YoY),
영업이익
935억원(+36.0%YoY) 예상**

현대차증권의 2026년 순영업수익(별도기준)을 4,100억원(+34.2%YoY), 영업이익을 935억원(+36.0%YoY), 당기순 이익을 712억원(+26.2%YoY)로 추정한다.

실적 개선의 주요인은 브로커리지 수익 급증이다. 올해 현대차증권의 수탁수수료 수익은 1,939억원으로 전년대비 155.6% 급증할 것으로 추정한다. 2026년 주식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KOSPI+KOSDAQ+NEXT 기준)은 68조원으로 전년대비 163% 급증하는 가운데, 1.2%의 시장점유율과 9.1bp의 수수료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공여 수요도 증가하며 신용공여 이자 수익도 102억원으로 전년대비 20% 증가할 예정이다. 증시로의 자금 유입에 힘입어 신용공여 수요가 증가하나, 금융당국의 규정(신용공여의 총액은 자기자본의 100%이내에서 관리, 자기자본은 별도 기준)과 현대차증권의 리스크 관리 전략으로 신용공여금은 1.1조원(+9.5%YoY)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전년도 증익의 한 축이었던 IB 수수료수익(기타수수료수익 포함 기준)은 1,222억원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다. 전통적인 IB 부문인 ECM과 DCM은 전년대비 부진하나, 채권보증수수료 수익 증가에 힘입어 IB수수료 수익이 증가할 전망이다. 국민성장펀드 및 금융기관의 생산적 금융 지원이 본격화되면서 기업들의 신규 자금 수요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 기조와 시중금리의 빠른 상승으로 채권 수요도 위축되고 있다.

상품운용수익은 시장금리가 상승하며 보유채권 평가손실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진 가운데, 6월말부터 국내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전년대비 적자 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판관비율은 1) 순영업수익 증가에 따른 영업레버리지 효과와 2) 올해 10월 도입 예정인 차세대 시스템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로 전년대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결기준 순영업수익은 4,144억원(+34.1%YoY), 영업이익은 755억원(+30.7%YoY)로 추정한다.

현대차증권 연간 실적 전망

		2022	2023	2024	2025	2026F
손익계산서 (억원)	순영업이익	3,181	2,519	2,633	3,055	4,100
	순수수료이익	2,277	1,550	1,636	2,092	3,221
	수수료이익	2,376	1,688	1,803	2,304	3,546
	수탁수수료	415	561	570	758	1,939
	금융상품판매수수료	292	324	342	367	386
	IB 관련수수료	1,620	748	830	1,073	1,101
	기타수수료 수익	49	54	61	105	121
	(수수료 비용)	99	137	167	211	325
	순이자이익	615	1,015	956	913	919
	상품운용관련손익	678	192	168	-55	-90
	기타영업이익	-389	-239	-128	105	50
	판매비와 관리비	2,110	1,864	2,088	2,368	3,165
	영업이익	1,070	654	545	687	935
	영업외손익	8	2	-42	-4	5
	세전이익	1,078	656	504	683	940
	법인세 비용	276	116	140	142	228
	당기순이익	802	540	363	542	712
	연결 지배주주순이익	871	535	362	577	755
수익기여도 (%)	위탁매매	9.9	16.8	15.3	17.9	39.4
	자산관리	9.2	12.9	13.0	12.0	9.4
	IB+기타수수료	52.5	31.9	33.8	38.6	29.8
	이자손익	19.3	40.3	36.3	29.9	22.4
	상품운용손익	21.3	7.6	6.4	-1.8	-2.2
	기타영업이익	-12.2	-9.5	-4.8	3.4	1.2
지표 (%)	판관비율	64.8	74.1	79.2	76.6	76.4
	ROE	7.3	4.3	2.8	4.2	5.2
	ROA	0.9	0.5	0.3	0.5	0.6
재무상태표 (억원)	자본총계	12,162	12,699	12,944	14,321	14,686
	자산총계	94,318	109,713	114,209	116,745	118,951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현대차증권 분기 실적 전망

		1Q24	2Q24	3Q24	4Q24	1Q25	2Q25	3Q25	4Q25	1Q26
손익계산서 (억원)	순영업이익	757	592	695	589	857	890	754	555	942
	순수수료이익	403	347	473	414	399	532	599	563	742
	수수료이익	430	409	511	453	433	601	650	619	788
	수탁수수료	165	149	138	118	132	159	199	267	504
	금융상품판매수수료	85	85	87	85	89	91	93	93	92
	IB 관련수수료	163	158	273	237	195	318	327	235	167
	기타수수료 수익	17	18	13	13	18	33	31	24	25
	(수수료 비용)	27	63	38	39	34	70	51	57	45
	순이자이익	224	250	248	234	217	247	231	218	266
	상품운용관련손익	162	33	1	-28	-76	128	40	-148	-119
	기타영업이익	-33	-38	-28	-29	316	-18	-116	-78	53
	판매비와 관리비	618	429	505	535	574	627	615	552	629
	영업이익	139	163	189	54	282	263	139	3	313
	영업외손익	-0	-0	-0	-41	-17	-0	15	-2	13
	세전이익	138	163	189	13	266	263	154	1	326
이익기여도 (%)	법인세 비용	33	38	46	23	67	57	38	-21	74
	당기순이익	105	125	143	-10	199	205	116	21	252
	연결 지배주주순이익	102	150	107	3	193	207	122	55	266
	위탁매매	18.2	14.5	14.4	13.4	11.5	10.1	19.7	38.0	48.7
	자산관리	11.3	14.4	12.5	14.4	10.4	10.3	12.4	16.8	9.7
	IB+기타수수료	23.8	29.6	41.2	42.3	24.8	39.4	47.4	46.6	20.4
지표 (%)	이자손익	29.6	42.3	35.8	39.6	25.3	27.8	30.6	39.2	28.2
	상품운용손익	21.4	5.6	0.1	-4.8	-8.9	14.4	5.3	-26.6	-12.7
	기타영업이익	-4.3	-6.4	-4.0	-5.0	36.9	-2.0	-15.4	-14.1	5.7
재무상태표 (억원)	판관비율	82.5	68.8	77.6	87.6	67.9	69.9	81.4	93.2	66.1
	ROE	3.2	4.7	3.3	0.1	5.6	5.7	3.4	1.5	7.4
	ROA	0.3	0.5	0.3	0.0	0.6	0.6	0.4	0.2	0.8
재무상태표 (억원)	자본총계	12,702	12,816	12,959	12,809	13,008	13,213	13,330	13,351	13,603
	자산총계	120,721	116,039	119,445	114,209	130,286	120,846	124,914	116,745	120,444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Valuation

현대차증권의 2026년 예상

PBR은 0.33배로

역사적 평균 수준.

밸류에이션 레벨 업을 위해서는

계열사와의 시너지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ROE 입증 과정

필요할 것으로 판단

현재 현대차증권의 2026년 예상 PBR은 0.33배이다. 2018년 이후 동사의 주가는 PBR 0.15~0.60배 범위에서 거래됐으며, 평균 PBR은 0.34배이다. 이를 감안하면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은 역사적 평균 수준에 위치해 있다.

다만 지난해 3월 1,62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BPS가 크게 변동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유상증자를 반영한 결과 2025년 BPS는 42,148원에서 22,984원으로 45.5% 감소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과거 BPS와 주가를 현재 주식 수 기준으로 동일한 비율만큼 조정한 PBR Band 차트를 활용해 역사적 밸류에이션을 비교했다. 과거 주가와 BPS를 동일한 비율로 조정했기 때문에 과거 PBR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다만 조정된 차트에서는 2024년 11월 유상증자 발표 이후 주가가 급등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11월 26일 이전 주가를 현재 발행주식 수 기준으로 환산했기 때문이며 실제 주가가 급등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유상증자 이후 투자자들이 동일한 주가 수준에 대해 더 높은 PBR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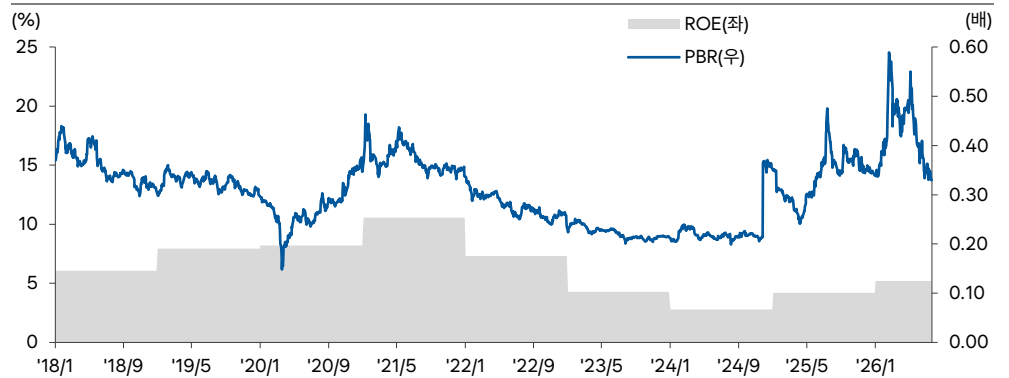
시기별로 살펴보면, 2018~2019년 평균 PBR은 0.30배, 평균 ROE는 7.0%였다. 이후 코로나19 발생으로 증권업 전반의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PBR은 역사적 저점인 0.15배까지 하락했다. 코로나 발생 직후 글로벌 확장적 통화·재정정책으로 풍부한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ROE는 10.6%까지 상승했고, PBR도 0.50배 수준까지 회복됐다. 그러나 2022~2023년에는 금리 상승과 부동산 PF 우려가 확대되며 PBR이 다시 0.2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 이후 PF 리스크 완화와 증시 자금 유입 기대를 반영해 올해 초 PBR은 역사적 고점인 0.60배까지 상승했으나 최근에는 다시 조정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지속 가능한 ROE가 10% 수준인 기업은 장기적으로 PBR 1배 내외에서 거래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대차증권은 ROE가 10.6%까지 상승했던 시기에도 PBR이 약 0.5배에 그쳤다. 이는 시장이 당시의 높은 수익성을 구조적이라기보다 업황과 유동성에 따른 일시적 개선으로 평가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결국 동사의 밸류에이션이 한 단계 레벨업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증시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뿐 아니라, 계열사와의 시너지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지속 가능한 ROE를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조정후 현대차증권의 PBR Band



현대차증권의 PBR 및 ROE 추이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경쟁사들과 Trailing 기준

**PBR-ROE 비교 시, 현대차증권의
밸류에이션은 적정하게 평가되고
있음**

현대차증권의 경쟁사로 중형증권사와 밸류에이션을 비교해 보았다. 중형증권사로는 지배주주 자본 기준 5,000억원~4조 사이의 상장사를 선정했으며, 이 기준에 부합하는 증권사로는 대신증권, 교보증권, 한화투자증권, 유안타증권, DB증권, 유진투자증권, LS증권과 한양증권이 있다. 이중 2026년 PER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가 있는 증권사는 대신증권이 있다. 현대차증권의 PER 비교 시, 현대차증권과 대신증권의 밸류에이션은 비슷하다. 현대차증권의 PER(당사추정치 기준)은 6.5배인 반면, 대신증권의 PER은 각각 6.0배이기 때문이다. 또한, 2026년 1분기 실적 기준으로 증권사들의 Trailing PBR-ROE를 비교해 보았다. 현대차증권(ROE 4.5%, PBR 0.3배)과 다른 경쟁증권사들의 평균(ROE 7.3%, PBR 0.5배)을 비교시, 현대차증권의 밸류에이션은 적정하게 평가되어 있다.

현대차증권과 경쟁사의 재무 및 밸류에이션 지표

		현대차증권	대신증권	교보증권	한화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부국증권	DB 증권	유진투자증권	LS 증권	한양증권
주가(원주)		8,100	26,200	9,760	4,435	4,560	54,600	9,130	4,305	6,560	19,750
시가총액(억원)		5,008	12,489	11,123	9,515	8,786	5,662	3,875	4,170	3,640	2,514
자산	2023	115,853	226,435	155,934	132,502	164,618	17,705	102,120	86,993	77,872	17,475
(억원)	2024	119,920	263,961	158,983	140,181	168,003	16,514	106,706	96,467	87,797	17,313
	2025	123,964	391,289	192,715	173,579	200,301	18,119	142,647	110,490	103,891	18,337
	2026F	125,415	401,750								
지배주주지분	2023	12,778	30,201	18,773	15,730	16,015	7,578	10,016	10,119	9,354	4,894
(억원)	2024	13,021	33,204	19,857	17,062	16,343	7,702	10,260	10,514	8,714	5,142
	2025	14,433	40,541	21,189	20,682	19,059	8,332	11,010	11,325	8,787	5,818
	2026F	14,781	41,330								
순영업이익	2023	2,516	6,574	2,839	3,060	5,099	1,856	2,661	2,741	1,707	1,537
(억원)	2024	2,634	5,983	3,617	2,827	5,132	1,306	3,397	3,092	1,679	1,796
	2025	3,090	8,846	4,517	4,694	6,016	1,797	4,290	3,692	1,960	2,136
	2026F	4,144									
영업이익	2023	652	1,613	703	315	1,291	691	213	270	332	463
(억원)	2024	547	836	1,139	40	948	367	619	583	218	544
	2025	723	3,014	1,904	1,477	994	568	1,167	844	222	753
	2026F	979	4,233								
(지배주주지분)	2023	535	1,336	676	93	644	573	62	307	287	348
당기순이익	2024	362	1,448	1,177	389	730	309	501	496	166	388
(억원)	2025	577	1,866	1,429	1,020	956	456	814	645	230	566
	2026F	755	3,937								
ROE(지배)	2023	4.3	4.7	3.9	0.6	4.1	7.9	0.7	3.1	3.1	7.3
(%)	2024	2.8	4.6	6.1	2.4	4.5	4.1	4.9	4.8	1.8	7.7
	2025	4.2	5.1	7.0	5.4	5.4	5.7	7.7	5.9	2.6	10.3
	2026F	5.2	9.6								
P/E	2023	6.4	8.9	6.3	64.5	8.7	4.9	28.0	10.8	11.0	3.5
(배)	2024	9.4	10.1	5.0	20.3	8.1	11.1	3.9	8.1	18.8	4.1
	2025	7.5	11.3	6.4	10.3	7.4	13.6	4.2	4.8	13.5	3.7
	2026F	6.5	6.0								
P/B	2023	0.3	0.3	0.3	0.5	0.3	0.3	0.2	0.3	0.3	0.3
(배)	2024	0.2	0.4	0.3	0.4	0.3	0.3	0.2	0.2	0.3	0.3
	2025	0.3	0.5	0.5	0.5	0.4	0.6	0.4	0.3	0.3	0.4
	2026F	0.3	0.5								
현금배당수익률	2023	4.7	8.4	5.1	0.0	7.1	6.9	5.2	1.7	3.9	8.7
(%)	2024	2.4	7.5	9.0	0.0	7.6	5.5	7.7	4.1	2.6	8.1
	2025	4.7	4.4	5.8	0.0	6.0	4.3	5.1	5.2	10.4	8.4

주: 주가와 시가총액은 2025년 7월 24일 기준, 현대차증권의 2026년 실적은 당사추정치 기준, 대신증권은 시장 컨센서스 기준, 나머지 기업은 추정치 부재

자료: Fnguide, 한국IR협의회 리서치센터

리스크 요인
**리스크 요인은 실적의
경기민감성과 부동산PF와 관련된
건전성 부담**

현대차증권의 리스크 요인은 1) 실적이 경기와 금융시장 상황에 민감하다는 점과 2) 부동산PF와 관련된 건전성 부담이 있다.

현대차증권의 실적은 경기와 금융시장 환경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편이다. 경기 회복 국면에서는 투자심리 개선과 주식시장 거래대금 증가가 브로커리지 수수료 및 금융상품 판매 수익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금융시장 변동성이 안정되고 증시가 우상향하는 환경에서는 자기매매 및 상품운용 부문의 운용 성과도 개선되면서 전반적인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다.

반면 경기 둔화나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는 거래대금 감소에 따른 브로커리지 수익 둔화와 함께 자기매매 및 상품운용 부문의 평가손익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증권업은 경기와 자본시장 사이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산업인 만큼,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동사의 실적과 ROE 역시 높은 변동성을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동사의 기업가치와 밸류에이션은 개별 기업 경쟁력뿐 아니라 국내 증시 거래대금, 금리 환경, 투자심리 등 거시 변수의 영향을 크게 받을 개연성이 크다.

한신평에 의하면, 현대차증권의 2026년 3월말 우발채무(채무보증) 잔액은 7,148억원으로 모두 신용공여성 채무보증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접 대출하거나 인수한 사모사채와 대출채권(1,657억원)을 모두 포함할 경우 자기자본 대비 62% 수준이다. 동사의 채무보증과 기업대출은 대부분 부동산금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동산금융 양적 부담은 경쟁사 대비 높다. 국내 부동산PF는 브릿지론보다 본PF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단일, 선순위 취급 비중이 높아졌다. 해외 부동산금융(총 2천억원)의 경우 주요 투자처가 해외 선진국(미국, 유럽) 오피스에 집중되어 있는 점은 리스크 요인이거나, 건별 금액은 약 200억원 수준으로 집중 위험은 크지 않다.

2026년 3월말 기준 자기자본 대비 순요주의이하자산 비율은 20.3%로 2025년말 대비 6.8%p 상승했다. 요주의여신이하자산은 대부분 부동산금융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산, 요주의 사업장 중 분양률이 저조한 지방, 비아파트 분양 사업장이 존재한다.

연결 손익계산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순영업수익	3,256	2,516	2,634	3,090	4,144
순수수료수익	1,641	1,360	1,423	1,898	3,017
수수료수익	1,749	1,514	1,630	2,124	3,370
수탁수수료	415	561	570	758	1,939
금융상품판매수수료	261	295	313	334	355
IB관련수수료	644	351	464	689	726
기타수수료 수익	429	307	283	342	350
(수수료 비용)	108	155	208	226	353
순이자이익	821	1,167	1,134	1,128	1,115
상품운용관련손익	538	-445	-187	-113	-270
기타영업이익	256	434	264	177	282
판매비와 관리비	2,110	1,864	2,088	2,368	3,165
영업이익	1,146	652	547	723	979
영업외손익	8	2	-42	-4	5
법인세 차감전 계속사업이익	1,153	654	505	719	984
법인세 비용	282	118	144	141	230
당기순이익	871	535	362	577	755
당기순이익(지배주주)	871	535	362	577	755

연결 재무상태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현금및 예치금	11,324	10,897	11,339	10,106	9,637
유가증권	72,694	86,958	91,679	91,036	90,998
당기손익금융자산	61,339	73,492	74,320	73,049	72,880
대출채권	15,214	14,795	13,209	17,642	18,046
유형자산	327	326	314	229	199
기타자산	2,772	2,877	3,379	4,951	6,535
자산총계	102,331	115,853	119,920	123,964	125,415
예수부채	3,876	4,224	5,891	6,079	6,589
매도파생결합증권	26,505	20,761	19,690	18,622	17,691
차입부채	52,772	69,954	69,315	72,047	74,486
기타부채	6,931	8,135	12,003	12,782	16,955
부채총계	90,084	103,075	106,899	109,531	110,634
지배주주지분	12,246	12,778	13,021	14,433	14,781
자본금	1,938	1,938	1,938	3,444	3,444
자본잉여금	3,687	3,687	3,687	3,781	3,781
이익잉여금	5,681	6,013	6,218	5,880	6,268
자본조정	0	0	0	0	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941	1,141	1,179	1,328	1,287
비지배주주지분	0	0	0	0	0
자본총계	12,246	12,778	13,021	14,433	14,781
부채 및 자본 총계	102,331	115,853	119,920	123,964	125,415

Valuation지표 및 재무비율

(원, 배, %)	2022	2023	2024	2025	2026F
EPS	2,747	1,687	1,140	1,234	1,221
BPS(연결)	38,617	40,293	41,059	23,342	23,904
BPS(별도)	38,352	40,045	40,817	23,161	23,751
PER	3.3	5.1	6.5	6.5	6.5
PBR(연결)	0.2	0.2	0.2	0.3	0.3
PBR(별도)	0.2	0.2	0.2	0.3	0.3
ROA	0.9	0.5	0.3	0.5	0.6
ROE(연결)	7.3	4.3	2.8	4.2	5.2
ROE(별도)	6.8	4.3	2.8	4.0	4.9
영업이익률	35.2	25.9	20.8	23.4	23.6
판관비율	64.8	74.1	79.2	76.6	76.4
자산/자본(별도)	7.8	8.6	8.8	8.2	8.1

별도 손익계산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순영업수익	3,181	2,519	2,633	3,055	4,100
순수수료수익	2,277	1,550	1,636	2,092	3,221
수수료수익	2,376	1,688	1,803	2,304	3,546
수탁수수료	415	561	570	758	1,939
금융상품판매수수료	292	324	342	367	386
IB관련수수료	1,620	748	830	1,073	1,101
기타수수료 수익	49	54	61	105	121
(수수료 비용)	99	137	167	211	325
순이자이익	615	1,015	956	913	919
상품운용관련손익	678	192	168	-55	-90
기타영업이익	-389	-239	-128	105	50
판매비와 관리비	2,110	1,864	2,088	2,368	3,165
영업이익	1,070	654	545	687	935
영업외손익	8	2	-42	-4	5
법인세 차감전 계속사업이익	1,078	656	504	683	940
법인세 비용	276	116	140	142	228
당기순이익	802	540	363	542	712

별도 재무상태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현금및 예치금	11,222	10,704	11,079	9,986	9,447
유가증권	71,943	86,433	91,448	90,315	90,521
대출채권	8,170	9,447	8,083	11,359	12,341
유형자산	327	326	314	229	199
기타자산	2,656	2,803	3,286	4,857	6,441
자산총계	94,318	109,713	114,209	116,745	118,951
예수부채	3,872	4,222	5,889	6,065	6,580
매도파생결합증권	26,505	20,761	19,690	18,622	17,691
차입부채	46,644	66,436	68,081	70,810	73,250
기타부채	5,134	5,595	7,606	6,927	6,743
부채총계	82,155	97,014	101,265	102,424	104,264
자본금	1,938	1,938	1,938	3,444	3,444
자본잉여금	3,687	3,687	3,687	3,781	3,781
이익잉여금	5,597	5,934	6,141	5,768	6,174
자본조정	0	0	0	0	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941	1,141	1,179	1,328	1,287
자본총계	12,162	12,699	12,944	14,321	14,686
부채 및 자본 총계	94,318	109,713	114,209	116,745	118,951

수익기여도(별도기준)

(%)	2022	2023	2024	2025	2026F
위탁매매	9.9	16.8	15.3	17.9	39.4
자산관리	9.2	12.9	13.0	12.0	9.4
IB	50.9	29.7	31.5	35.1	26.9
기타 수수료	1.5	2.1	2.3	3.4	2.9
이자손익	19.3	40.3	36.3	29.9	22.4
상품운용손익	21.3	7.6	6.4	-1.8	-2.2
기타영업이익	-12.2	-9.5	-4.8	3.4	1.2

배당지표

(원, %)	2022	2023	2024	2025	2026F
DPS	550	400	180	370	500
현금 배당성향(별도)	25.4	28.9	38.7	42.2	40.5
배당성향(별도, 자사주 매입 감안)	25.4	28.9	38.7	42.2	40.5
현금 배당성향(연결)	23.4	29.2	38.9	39.6	40.5
배당수익률	6.1	4.7	2.4	4.6	6.3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 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 7

종목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현대차증권	X	X	X

발간 History

발간일	제목
2026.07.29	현대차증권(001500)-주주환원 정책 의지 강한 증권사
2025.04.28	현대차증권(001500)-중장기적으로 그룹 시너지 효과 기대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출연한 한국IR협의회 산하 독립 (리서치) 조직인 기업리서치센터가 작성한 기업분석 보고서입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에게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양질의 투자정보 제공 및 간접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무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 리서치센터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와 그 배우자 등 관계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중소형 기업 소개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매수 및 매도 추천 의견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의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의 저작권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https://t.me/kirsofficial>)" 채널을 추가하시어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IR협의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IRTV'에서 1) 애널리스트가 직접 취재한 기업탐방으로 CEO인터뷰 등이 있는 '소중한탐방'과 2) 기업보고서 심층해설방송인 '소중한 리포트 가치보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